

스트리트 아트 입은 ‘시바스 리갈 길’… MZ 취저 팝업 오픈

〈취향저격〉

그래픽 디자이너 레어버스의 아트웍
브랜드 헤리티지, 프로그램 경험
미디어아트 접목한 라이브 포토존

페르노리카코리아의 글로벌 위스키 ‘시바스(CHIVAS)’가 국내 스트리트 아트와 감성을 담은 체험형 팝업스토어 ‘CHIVAS REGAL GIL(시바스 리갈 길)’을 내달 26일까지 압구정로데오에서 운영한다.

11일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미구엘 파스칼 마케팅 전무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음악, 패션, 그리고 스트리트 문화에 열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전달하고 싶다”며 “팝업스토어와 시바스의 아시아 브랜드 앰배서더인 ‘리사’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시바스가 좀 더 녹아 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시바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 시장의 투자를 지속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이사(왼쪽)와 미구엘 파스칼 마케팅 전무가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문을 여는 팝업 스토어 ‘시바스 리갈 길’에서 모델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시바스 리갈의 정체성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팝업스토어는 ‘나의 취향’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이에 걸맞게 ‘네 갈 길(Find your way)’을 부제로 선정했다.

‘CHIVAS REGAL GIL(시바스 리갈 길)’의 외관은 독특한 색감과 감성으로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레어버스(RAREBIRTH)’의 아트웍으로 꾸몄다. 시바스의 대표 제품인 시바스 15, 18을 상징하는 골드, 핑크, 블루 컬러 조명을 활용했다.

총 3층으로 구성된 팝업스토어 내부

에서는 시바스만의 브랜드 헤리티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1층에 들어서면 모든 시바스의 블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엄선된 시바스의 칵테일과 MZ세대 성지로 주목받는 ‘드렁큰타이거바’, 뉴트로스타일의 아메리칸 피자 전문점 ‘클랩피자’, 패스트 앤 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 ‘다운타운’이 입점해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2층은 시바스의 아시아 브랜드 앰배서더 리사가 직접 참여한 ‘시바스18’ 한정판 및 생동감 있는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라이브 포토존으로 꾸몄다. 이번 한정판 18년 바틀은 음악과 패션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감각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리사에게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바틀 라벨에는 대표 컬러 블루를 베이스로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별 모양 로고와 시그니처가 핑크색 네온 컬러로 추가되어 아이코닉한 느낌이 돋보인다. 바틀 외부에는 18K 골드 도금이 된 시바스의 심볼과 리사를 상징하는 별 모양의 펜던트가 탈부착 가능한

형태로 장식됐다. 2층 한 칸에는 펜던트를 이용한 가족공예 체험존을 마련해 소비자들 직접 참여해볼 수 있다. 가족팔찌와 컵받침을 제작한다.

3층은 대표 블렌드(시바스12, 시바스XV, 시바스18)를 표현한 비트에 본인의 색깔을 더한 비트를 만들어볼 수 있는 ‘비트 메이킹 부스’와 라이브 드로잉 존으로 꾸몄다.

이날 아티스트 ‘필독’은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시바스의 블렌디드 위스키 미학을 표현하는 드로잉쇼를 진행했다.

한편, 시바스 리갈 길은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이라면 누구나 예약없이 방문 가능하며, 네이버를 통해 예약할 경우 우선 입장할 수 있다. 특히, 힙합 공연과 댄스 워크샵, 시바스 브랜드 칵테일 클래스 참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예약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시바스 팝업’, ‘시바스 리갈길’, ‘CHIVAS REGAL GIL’을 검색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바이오, 메가 플랜트 세운다… 2030년까지 3조 투자

36만 /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
인수-신규 건설, 2개의 전략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3조원을 투자, 3개 메가 플랜트를 세우고 국내 36만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생산을 시작해 2034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는 10일(현지시간)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아시아태평양 트랙에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고 이와 같은 10년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수와 신규 건설이라는 두 개의 전략으로 CDMO 시장에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아시아태평양 트랙에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고 10년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총 30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3개의 메가 플랜트, 총 36만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국내에 갖춘다는 계획이다. 1개의 메가 플랜트 당 12만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임상 물

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도 추가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첫번째 메가 플랜트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준공, 2026년 하반기 GMP 승인, 2027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34년 3개의 메가 플랜트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출액 30억 달러, 영업이익률 35%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신규 치료제 발굴 기여를 위해 메가 플랜트 단지를 롯데바이오 캠퍼스로 조성하여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 벤처들이 시설을 이용하며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바이오 벤처 계획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콧의 미국 시러큐스 공장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8개월만에 CDMO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시러큐스 공장을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북미 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ADC 위탁 생산 서비스 제공 ▲임상 물질 생산 배양 시설 및 완제 의약품 (DP) 시설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GC녹십자웰빙

프로비던스 덴티원 유산균

GC녹십자웰빙이 아이들의 입속 세균 관리에 도움을 주는 키즈용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프로비던스 덴티원 유산균’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프로비던스 덴티원 유산균’은 자사의 유산균 전문 연구소의 노하우로 배합된 구강 특허 유산균 2종(MG505, MG310)이 함유된 제품이다. 동물 실험 연구 결과, 지난 2018년에는 ‘MG505’의 충치 원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99.8%로 확인됐으며 지난 2021년에는 ‘MG310’의 치주염 원인균에 대한 활성 억제 효과가 80%로 확인됐다. /이세경 기자

CJ웰케아

60여 종 건강 선물세트 출시

CJ웰케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흑삼 선물세트 신제품 등 60여 종의 건강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에 새롭게 선보인 신제품은 한뿌리 ‘흑삼 진액 제로’ ‘흑흑천’ ‘흑삼 켄스틱’ 3종이다. 세 제품 모두 CJ웰케아의 독자적 기술력이 적용된 ‘구증구포(아홉번 찌고 말린) 흑삼’을 담았다. ‘구증구포 흑삼’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증가시킨 제품으로 홍삼 대비 흡수율을 최대 120% 높였으며 흡수시간도 1시간 단축했다.

‘흑삼 진액 제로’는 제로 칼로리 음료 시장 확대에 맞춘 무설탕 흑삼 음료 제품으로 감미료, 보습료, 착색료를 넣지 않고도 건강과 맛을 챙겼다. ‘흑흑천’은 뉴질랜드 최상위 등급인 SAT 등급 녹용과 영지버섯, 동충하초 등 5가지 버섯을 함유했다. /신원선 기자

“설연휴 서울신라호텔서 와인파티 즐겨요” JW중외제약 ‘가드렛’, 당화혈색소 개선

‘홀리데이 와이너리’ 이벤트

서울신라호텔이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21일부터 23일까지 대연회장 다이내스티홀에서 와인 파티 ‘홀리데이 와이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저녁 7시부터 두시간 진행하며 7시 30분부터는 1시간 동안 재즈 공연도 펼쳐진다.

이번 이벤트가 펼쳐지는 대연회장은 약 1130㎡(340평) 공간으로, 만찬 테이블과 화려한 샹들리에,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과 촛불이 마치 영화 속 만찬장을 연상하도록 꾸며진다.

라이브 재즈 공연은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재즈 기타, 드럼, 색소폰, 트럼펫으로 구성된 6인조 밴드다. 대중에게 사

랑받는 재즈 음악으로 연주곡을 엄선해 다이내스티 홀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홀리데이 와이너리에는 10여종의 와인과 마리아주 안주가 마련된다. 마리아주 안주는 서울신라호텔의 대표 메뉴로 구성된 치즈 플레이트, 칵테일 새우, 안심 찹스테이크, 연어 구이, 홈메이드 소시지 등과 함께 달콤한 디저트까지 제공된다.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토끼해를 맞이해 토끼 라벨로 유명한 ‘젠틀 레빗’의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2종을 준비했다. /김서현 기자 seoh@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국제 학술지 온라인판 게재

기존 당뇨병 치료제(DPP-4 억제제)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환자에게 ‘가드렛’이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제시됐다.

JW중외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가드렛의 당화혈색소(HbA1c) 개선 우수성을 입증한 관찰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 학술지 ‘당뇨병 치료’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11일 밝혔다.

DPP-4억제제인 가드렛은 아나글립틴이 주성분인 2형 당뇨병 치료제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하는 1형 당뇨병과 달리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만, 양이 적거나 저항성 때

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김성래 교수(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은 가드렛을 제외한 DPP-4 억제제를 8주 이상 단독 또는 병용 복용 중인 2형 당뇨병 환자 중 당화혈색소 수치가 7.0% 이상인 1119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가드렛 100mg으로 전환 복용 12주차와 24주차에 당화혈색소를 측정한 결과 12주차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복용 전보다 0.4% 낮아졌고 24주차에는 0.4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